

“안전불감증에 또 무너져”... 광주 붕괴 사고 유족들, 참담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로 지역에서 발생한 공사현장 관련 사고가 4년 사이 3건으로 늘어난 가운데 참사자 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하나같이 “아무 변화가 없다”고 참담해했다.

12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전일까지 누적된 지역 공사현장 내 대형 붕괴사고는 3건에 이른다.

지난 2021년 6월9일 오후 4시22분께 학동 4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지하 1층~지상 5층 건물 철거공사를 하던 중 건물이 버스승강장으로 무너지면서 정차 중인 시내버스를 덮쳐 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쳤다.

학동 붕괴 참사의 배경은 입찰 비위와 공사 나눠먹기, 관리 감독 소홀 등 총체적 부실로 밝혀졌으며 공사업체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또 7개월여 만인 2022년 1월11일에는 서구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타설 작업 중에 23~38층이 무너져 하청 노동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사고 원인은 전문가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동바리를 조기 해체했으며 요철 받침판(PIT층 데크플레이트) 공법을 구조 검토 없이 변경해 붕괴한 것으로 조사됐다.

화정아이파크는 사고 이후 전면 철거가 결정됐으며 재공사를 통해 2027년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이다. 참사 유족들은 하나같이 되풀이되는 참사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진의 학동 참사 유가족 대표는 “이번 사고는 정치권과 행정, 사회적으로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우리 유가족들이 4년 동안 그렇게 울부짖고 소리쳤던 것들은 같은 일이 반복



스방당국이 11일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건설 도중 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구조물 붕괴 사고 현장에서 간해물에 매몰된 것으로 추정되는 작업자들을 수색 구조하고 있다.

학동 재개발 붕괴참사 유족 “아무 변화 없어 참담해”

화정아이파크 붕괴참사 유족 “또 되풀이, 마음 아파”

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였다”고 한숨을 내뿜어 쉬었다.

이 대표는 “짧은 기간 내에 다시 사고가 반복됐다는 게 참담하다. 우리 유가족들도 현재까지 트라우마에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 계시는 매물자 가족분들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실지 잘 알고있다. 허망할 뿐”이라며 낙담했다.

안정호 화정아이파크 참사 유가족 대표도 “(우리 유가족이 겪었던) 동바리 미설치와 같은 문제가 또다시 되풀이됐다. 현장은 생물이야. 관리감독, 감리 등이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건축 결과물이 다르다. 이번 사고는 핑계의 여지가 없다”며 “수도권 대비 지역은 특히 건축에 대해서 공사현장을 대하는 행정의 태도가 굉장히

느슨하다. 여기서 비롯된 안전불감증 또한 무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가 겪었던 것처럼 똑같이 매서운 겨울 한파 속 매물 노동자들을 기다리고 있을 가족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 아프다. 특히 중소기업이 사후보상 처리를 도맡을 경우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서줄지 막막하다”며 “죽음에는 차별이 없어야 한다. 사고를 쉬쉬하고 유야무야 넘어가는 일이 결코 없어야 한다. 기억하지 않은 참사는 되풀이된다”고 말했다.

/오권철 기자

광주대표도서관 7차례 설계변경·코로나까지... 5년→9년 연장

광주대표도서관 구조물 붕괴사고 매몰자 수색이 이틀째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건립공사는 기초공정 지연과 예산 부족, 시공사 부도로 수차례 계약·설계변경이 진행돼 5년 사업이 9년까지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광주시와 종합건설본부 등에 따르면 서구 옛 상무소각장 부지에 추진되고 있는 광주대표도서관 건립 공사는 지난 2017년 12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5년 프로젝트로 계획됐지만 예산 부족·업체 부도 등으로 완공기간이 2026년 5월로 수정돼 총 공사기간이 9년으로 늘었다.

사업비는 당초 392억(국비 157억·시비 235억)에서 변경 후 516억6300만원(국비156억8000만원·시비359억8300만원)으로 증가했다.

2017년 12월~2022년 12월 5년 프로젝트 추진

세르비아 공모 당선자 코로나19로 입국 못 해

또 2019년 11월 국제공모를 통해 세르비아 브리니슬라프 레딕의 작품을 선정하고 예산 17억3000만원을 투입해 본적 설계를 추진했다.

당시에는 도심 기피시설이 시민이 이용하는 복합문화시설로 재탄생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상무소각장은 2001년 가동 이후 2016년 12월 폐쇄됐다.

광주대표도서관 건립은 실시설계까지 순조롭게 진행돼 계획에 따라 2022년 12월까지 완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였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차질이 빚어졌다.

작품 공모 당선자 세르비아의 레딕이 설

계업체와 구체적인 설계도를 완성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입국을 하지 못하면서 수차례 미뤄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 착공을 하지 못하는 사이 건축자재비와 인건비 등은 상승해 사업비는 두 배 가까이 늘었고 경제성 부족 문제도 제기되면서 공사 기간이 2022년 9월에서 2024년 5월로 1차 수정됐다.

또 코로나19 해제 이후에도 불황이 지속되면서 공사기간은 2024년 5월에서 2026년 1월로 2차 변경됐으며 2025년에는 시공업체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돼 완공기간이 2026년 5월로 3번째 미뤄졌다.

5년 프로젝트가 9년으로 늘어나면서 설계·계약변경도 7차례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대표도서관 가설울타리를 변경하고 기존 건축물 철거 과정에서 발견된 누락사항을 반영한 설계변경이 2022년 9월에 있었으며 2차는 장애물 없는 공사현장 인증(BF)을 위해 설계변경이 추진됐다.

2024년 4월에는 상무소각장 연계 통합 계획이 반영됐으며 평판재하시험 적용 및 기초 변경(2025년 3월), 철근이음 공법 변경(2025년 4월), 상무소각장 연계 건축공사 및 시스템 비계 설치(2025년 4월) 등 설계·계약 사항이 변경됐다.

또 이날 기준 공정률이 70%인 상황에서 광주대표도서관 건립 현장은 공사 중지 명령이 내려졌고 경찰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사고 원인과 책임소재 등을 가리기 위한 조사에 나서 중단이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인다.

/전민규 기자

데크플레이트 붕괴사고, 고질적 터지면 참사 ‘사망자 속출’

‘노동부 안내서’ 분석... 5년간 9건 발생·15명 숨져 대부분 타설중 사고... 접합 결함·타설불량 주원인 광주대표도서관 유사... 구조 검토 여부 등 살펴야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데크플레이트 구조물 붕괴는 전국 건설현장에서 반복돼 온 고질적인 사고 유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5년간 데크플레이트 붕괴 사고는 전국에서 9건이 발생해 15명이 숨졌고 대부분 콘크리트 타설 중 발생했다.

특히 이번 사고 주요 원인으로 ‘접합부 결함’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과거 붕괴 사고 역시 접합부 결함이나 콘크리트 타설 불량, 구조검토 생략 등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고용노동부 ‘데크플레이트 붕괴사고 예방 안전작업 안내서’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10월까지 데크플레이트 붕괴 사고는 해마다 끊이지 않았다.

연도별로는 ▲2019년 3건(5명 사망) ▲2020년 2건(3명 사망) ▲2021년 2건(2명 사망) ▲2022년 1건(3명 사망) ▲2023년 10월 1건(2명 사망) 등이다. 5년간 9건의 붕괴 사고가 발생해 15명이 숨졌다.

데크플레이트 붕괴 사고 빈도가 높지 않지만 한 번 발생하면 작업자 2~3명이 동시에 숨지는 ‘치명적 사고’라는 특징을 보였다.

2019년 3월 경북 안동에서는 바닥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중 데크플레이트가 접합부에서 탈락, 작업자 3명이 추락해 숨졌다.

사고는 데크플레이트 결함·고정 등 접합부 결함에서 비롯됐다. 데크플레이트를 지지하던 목재 받침이 떨어져 나가면서 바닥 슬래브가 붕괴됐다. 구조검토에 의한 조립도 작성 없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받침용 목재를 설치했고 구제적 방법 없이 임의로 콘크리트 붓기로 고정하는 등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2022년 10월 경기 안성에서 3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사고는 4층(높이 13m) 바닥 콘크리트 타설 중 보 하부

동바리와 데크플레이트가 함께 붕괴되면서 발생했다.

시방서상 콘크리트 타설을 기동부터 보, 바닥 순서로 진행해야 하지만 중앙부부터 흘러보내 타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조검토나 조립도 작성은 물론 동바리 안전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2023년 8월 경기 안성에서 2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사고도 9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 중 발생했다. 양 끝 지지보 거푸집이 터지며 데크플레이트가 함께 붕괴한 것으로 조사됐다. 역시 공법이 변경됐지만 구조검토나 조립도 작성은 없었고 동바리 안전조치도 이뤄지지 않은 게 사고의 원인이었다.

2021년 2월 서울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 5명이 추락해 다친 사고는 콘크리트 타설 불량이 사고 원인이었다. 10m 이상 높이에서 바닥 중앙부로 집중 타설해 무게를 견디지 못해 붕괴로 이어졌다.

국내에서 발생한 데크플레이트 붕괴 사고 사례를 종합하면 대다수 원인은 ▲구조검토 미실시 ▲조립도 미작성 ▲접합부(용접·지지) 결함 ▲콘크리트 타설 불량으로 압축된다.

광주대표도서관 공사현장 붕괴 사고 역시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접합부 결함을 비롯해 구조검토 실시·조립도 작성 여부, 콘크리트 타설 불량 등을 면밀하게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건설업계에서는 공정 단축을 위한 이른바 ‘기성 압박’ 때문에 지지대 설치나 접합부 점검 등 기본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도 꾸준히 제기했다.

광주 전문건설업 관계자는 “공법 자체는 표준화돼 있지만 기본적인 안전수칙과 절차 일부가 생략되는 순간 같은 사고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하청·협력업체는 일정 공정을 빨리 끝내려는 압박을 받는다. 이런 문화가 개선되지 않으면 사고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현근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주)통일화물은 정성과 책임으로 늘 변함없이 고객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책임있는 물류문화를 만들어가는데 앞장서는 (주)통일화물
나보다 고객을 먼저 배려하는 아주 특별한 만남
이제 (주)통일화물을 만나보십시오.

(주)통일화물이 힘찬 도약을 시작합니다

- 취급차량 : 1t~12t
- 중앙지 및 지방지 신문수송전문
- 정보지 · 신문 광고대행
- 광고전단지 운송 · 배포
- 일반이사 및 포장이사전문
- 기업물류 운송 전문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1573-1번지 3층 ☎(062) 956-8500~2 Fax(062) 956-2001